

##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 장로교회

나 용 화 교수  
(조직신학)

복음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설립된지 백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신학적 성향에 있어서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곧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다. 이 복음주의의 뿌리를 찾자면 일차적으로는 칼빈(1509-1564)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8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과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두 신학적 거목인 박형룡과 박윤선의 신학적 배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인 찰스 하지(1787-1878), B. B. 워필드(1851-1921), G. 메이첸(1881-1937), C. 반틸(1895-1987)을 비롯하여 성경신학의 게할더스 보스(1862-1949), 구약신학의 E. J. 영(1907-1968)과 조직신학의 L. 벌코프(1874-1957)와 존 머레이(1898-1975)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은 이들의 신학을 박형룡과 박윤선이 프린스턴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수학하여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이 글은 이같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의 맥에 근거하여, 먼저 이 신학의 원조인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중심되는 신학 사상을 살피고, 이어서 하지, 워필드, 보스, 메이첸, 반틸과 존 머레이와 영 및 벌코프 등의 신학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신학을 전수시켜 준 한국장로교회 초기의 선교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마포삼열(S. A. Moffett, 1864-1939), 콕안런(C. A. Clark, 1878-1961)과 이눌서(W. D. Reynolds, ?-1951)의 복음주의 신학사

상을 살피고, 한국장로교회가 낳은 두 거목인 박형룡과 박윤선의 신학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곁들여 실천신학자인 명신흥의 신학도 소개했다. 그리고 이 거목들이 섬겨온 신학교들과 이들의 후학들을 중심으로 복음주의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어왔는가를 몇몇 신학교를 중심으로 살폈다. 끝으로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을 전망함과 아울러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 I. 복음주의에 대한 신학적 정의

복음주의 신학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입장을 따르는 반로마 카톨릭교회의 신학을 통틀어 가리키기도 하고, 반자유주의 신학을 일컫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의 무오성,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과 대속적 죽음, 육체의 부활 및 그리스도의 역사적 재림 등 다섯가지 기본 교리만을 고집하는 근본주의와 구별하여 쓰여지기도 한다.<sup>1</sup> 그러나 통상적으로 정의하자면, 신학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도덕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써의 복음주의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절대시하는 “오직 성경”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다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진리를 주장하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는 신학이다.

이 복음주의 신학은 마틴 루터가 시편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체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아울러 성경의 신적 권위와 절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신칭의 교리를 성경에서 발견했던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임을 확신하고서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1. 김의환, 『복음주의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p. 15

말씀 곧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2</sup> 이로써 루터가 새롭게 체득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삼대 교리가 복음주의 신학을 짚트게 하였다.

그러나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과 성화 교리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였는가 하면<sup>3</sup> 행함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가별게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준데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의 완전축자 영감 교리를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을 뿐 아니라, 기독교 교리를 전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같은 루터의 신학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음주의 신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1559년 최종판)를 통해서 복음주의신학을 체계화 시켰다. 칼빈의 신학사상이 교리적으로 신조화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8)이다. 그리고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학적 전통을 이어 받아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을 발전시킨 것이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3권, 1871-73)과 그의 아들 A. A. 하지의 「신학개론」(Outlines of Theology) (1879)이다. 하지 부자의 뒤를 이어 칼빈주의를 발전시킨 사람은 B. B. 워필드(1887-1921)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함과 G. 보스(Vos)이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6년에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로 기울자 G. 메이첸(Machen)이 거기서 떨어져 나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1929년 개교하여 C. 반틸(Van Til)과 존 머레이(John Murray) 등과 함께 워필드의 뒤를 이었다. 메이첸이 1937년에 갑자기 죽음으로 해서 반틸과 머레이가 O. T. 엘리스(Allis)와 E. J. 영(Young)과 함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를 발전시켰고, 칼빈신학교의 L. 벌코프(Berkhof)와 카베난트신학교의 J. O.

2. 지원용, 『루터의 사상』(권물디아사, 1982), pp. 122, 132; 이형기, “복음주의 신학의 역사적 기원과 한국의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 『성경과 신학』1권(1983 5월): pp. 181, 193.

3. 김의환, 상계서, p. 21.

버스웰(Buswell), 그리고 신약 주석의 거장 W. 헨드릭슨(Hendrikson) 등이 크게 기여하였다.<sup>4</sup>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파송되어 온 초기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신학적으로 하지와 워필드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요,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의 두 거목인 박형룡과 박용선이 각각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메이첸과 반틸 밑에서 수학했던 까닭에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의 맥을 잇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회가 처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인도 장로교회의 12신조를 채택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sup>5</sup> 그래서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신학은 성격상 “보수주의적 복음주의”<sup>6</sup> 또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sup>7</sup>, “청교도 개혁주의”<sup>8</sup>인 것이다. 박형룡에 의하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같은 의미이고, 정통주의와 복음주의가 같으므로<sup>9</sup> 한국의 장로교회 신학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또는 간단하게 말해서 “개혁주의”이다.

박형룡이 말하는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의 주요 특성은 모든 일들을 영원부터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양성인격, 성령의 인격성, 성경의 유기적 완전축자영감과 신적 권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한 희생과 죽

4. 김의환, 상계서, pp. 49, 75-77; 홍치모, “장로교 신학의 역사적 계보”, 『신학지남』 제43권 3집(1976년 가을): pp. 41-43.

5. 김남식,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사』 I (베다니, 1997), p. 184.

6. 박용규, 『한국 장로교 사상사』(충신대출판부, 1992), p. 19; 김남식, 간하배, 상계서, p. 6.

7. 이형기, 상계서, p. 196.

8. 박형룡,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제43권 3집(1976년 가을): p. 11. “장로교회의 신학이란 구미대륙의 칼빈 개혁주의에 영미의 청교도 사상을 가미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신학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영미 장로교회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에 전래되고 성장한 과정이다.”

9. 참고, 박형룡, 『교의신학』 I (서론) (백합출판사, 1973). 박형룡은 “머리말”에서 자신의 신학을 칼빈주의 개혁과 정통신학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형룡은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가 하면, 복음주의와 전통주의를 교대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참조,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XIII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81), p. 304. 박용규는 박형룡의 신학을 “칼빈주의 정통신학” “복음주의 보수 신앙” 또는 “근본주의”(전통적 보수주의 정통주의와 동일한 의미임)로 칭하였다.(참고, 박용규 편,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충신대학교 출판부, 1996), pp. 342-347, 395)

음, 그의 부활과 승천, 그의 신체적 영광스런 재림, 모든 사람의 부활과 심판,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외에도 아담의 원죄와 죄의 전가, 인간의 타락과 전적 부패와 무능력,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이신칭의와 구원 등이다.<sup>10</sup>

박형룡의 신학적 맥을 이어 받은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의 신앙고백서는 복음주의를 잘 요약해 놓았다.

1.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2.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3.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4.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귀함, 전적 타락,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는다.

5.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시며, 중생 시키시며, 내주 하시며, 성화 하시는 사역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며, 세상에서 복음을 효과 있게 증거케 하시며, 책임있는 봉사를 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

6.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온 인류를 영생의 부활, 혹은 영벌의 부활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7.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인 것을 믿으며, 또한 이 교회의 근본적인 과업이 예배, 복음증거, 성도의 교제, 기도, 봉사 그리고 선교임을 믿는다.

8.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이 교회의 책임임을 믿는다.<sup>11</sup>

10.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XIII, pp. 236-238, 304; 참조,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제43권 3집: pp. 12, 16.

11. 『성경과 신학』 제 1권: p. 305.

한국복음주의 신학회가 밝혀 놓은 복음주의 신앙은 “로잔언약”(1974년) (The Lausanne Covenant)이나 “성경 무오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1978년) (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Inerrancy), 그리고 “’89 복음주의 선언” (’89 Evangelical Affirmation)과 기본적으로 상통한다.<sup>12</sup> “로잔언약”은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의 변화, 영적 투쟁과 성령의 능력을 특별히 강조하였고, “성경 무오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은 성경의 유기적 완전축자영감, 성경의 무위성 (infallibility)과 무오성(inerrancy)과 신적 권위, 성경 계시의 점진성, 성경의 독자적 신빙성, 성경의 유기적 통일성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 성경의 최종성 등을 상세하게 밝혀 놓았으며, “’89 복음주의 선언”은 창조, 섭리, 계시 그리고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의 실재를 주장하고 복음주의의 신학적 정체성을 재천명하였다.

“’89 복음주의 선언”이 밝힌 복음주의는 다음과 같다.

복음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그 모든 결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삶을 살다가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다. 구주의 은총과 그의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 없이 주어졌으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 은혜와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개인적인 선행이라는 조건이 필요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교의를 모두 고수한다.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 전부터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충만한 연합, 그의 죄없으심, 그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재림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필요성, 앞으로 다가올 영생에 대한 소망 등이다. 이러한 신조들은 성경에서 나왔으며 사도신경과 복음주의 교회들의 역사적 신앙고백으로부터 결집된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뚜렷한 표지가 있다. 첫째는 주님의 가르침과 함께 그들은 성경을 모든 신조

12. 참고, 김의환,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pp. 425-460. 김의환은 세 개의 주요한 복음주의 문서들을 친히 번역하여 전문을 게재해 놓았다.

의 최종적인 권위의 근거로 믿는다. 이것은 복음주의를 형성하는 원칙이다. 둘째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수한다. 셋째는 성경은 완전한 진리이며 신뢰할만한(무위하고 무오함)것으로서 복음주의자들의 사상과 삶을 인도해주는 유일한 권위이다.<sup>13</sup>

## II.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의 역사적 근원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은 박형룡이 밝히 말한 대로 역사적으로 요한 칼빈(1509-1564)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1648)에 근원을 두고 있다.<sup>14</sup>

### 1. 칼빈의 신학사상과 한국내에서의 칼빈연구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바 그의 중요한 관심은<sup>15</sup> 하나님 곧 우리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어 아는 지식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경건을 낳는다. 그러기에 경건한 지는 하나님을 모든 좋은 것의 원천 되시는 아버지로 알고 그를 사랑하며 신뢰할 뿐 아니라 주님이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알고 경외하며 순종한다. 칼빈은 이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1권에서 다루었다. 이 지식은 성경에서 얻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별한 원천인 성경은 그것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신적 권위가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진리를 담고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까닭에 완전무오하며 자명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며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 이외의 다른 새로운 계시가 전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칼빈은 성경의 신적 권위, 영감성과 완전무오성, 필요성과 자명성 및 충분성 등을 강조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13. 상계서, p. 459.

14.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제43권 3집(1976년 가을): p. 11.

15. 참조,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기독교 문서선교회, 1992), pp. 21-38.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놓았다.

이 성경을 안경으로 삼을 때 주관적 내적 계시인 신의식 또는 종교의 씨와 객관적 외적 계시인 피조 세계가 신의식의 보조적 원천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한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는 인격적 존재요, 작정하고 창조하며 섭리하시는 활동적 존재이시며, 사단의 미혹으로 타락하여 악해진 인류와 자연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보존하며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요, 그 만유를 사랑하여 돌보시는 구속주이시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의 단일한 하나님이시요, 이 삼위는 고유한 특질에 의한 구별이 있으며 정연한 차서(次序)가 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깊은 언약적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즐거워 할 수 있게 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혼은 불멸적이고 육체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가 빛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까닭에 본래 우리의 지식은 밝고 마음이 올바르며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한 존재이다.

칼빈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여 섭리하신다. 칼빈의 섭리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책임과 사려분별(思慮分別)을 강조한다. 즉,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전하는 방편과 수단을 제공해 주고 예방 조치와 구제책도 마련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모든 방편과 수단과 구제 방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죄와 그리스도를 논한다. 칼빈이 죄를 논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여져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에게서만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며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칼빈은 창세기3장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충과 불순종이 죄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전혀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악을 생산해내며 우리 인간은 육육 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의를 추구하거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칼빈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간파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바로 잡으며 치료하기 때문에 은혜가 모든 선행에 앞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의 의지가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는 곳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혜가 역사 하는 곳에 죄의 치료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의 지성을 내면적으로 깨우치고 마음을 개조하여 의를 사랑하고 함양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외부적으로는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무시켜 바로 그같은 갱신을 소원하고 추구하여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마비시키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며 그것을 교정하고 개혁하며 갱신함으로써 지도하고 규제하는 성령의 통치이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어떠한 지식도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이 범 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고,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다. 그는 사람으로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죽음을 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되, 하나님으로서는 죄인들을 의롭게 만드시는데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는 구속주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 직분을 가지고서 죄인들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낮고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나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빌라도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 받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친히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는 대속적 배상 (satisfaction)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부패를 씻어내는 물대야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땅에 묻히심으로 우리의 육이 죽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는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공포와 지옥의 고통에 대하여 승리하셨으며, 이로써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셨다.

또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의가 회복되고 사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며 새로운 생명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지금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임 대언자로 나타나셨으며 날마다 신령한 축복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쏟아 부어 부요케 하신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순종 곧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실제로 확보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 그의 긍휼과 은혜,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궁극적 원인이요, 그의 은혜는 효과적인 원인이며, 그리스도의 순종은 실질적 원인이요, 우리의 신앙은 방편적 원인인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곧 성령의 내적 사역을 다루고, 제4권에서는 성령이 일하실 때 사용하는 외형적 방편을 다루었다. 즉, 제3권에서는 성령이 성도들 안에서 하시는 일로서 믿음과 회개를 다루었고, 제4권에서는 성령이 복음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루었다. 그러기에 3권은 성령론이고 4권은 교회론이다.

성령의 주관적 내면적 사역은 우리 안에서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는 일이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여 연합시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 이로써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를 지며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한 연습인 기도에 의하여 이 믿음은 강화될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린다.

칼빈의 경우, 신앙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성령뿐이고, 신앙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뿐이며, 신앙의 내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지식이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선하심과 참되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성화되며 내세를 묵상하는 한편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겸손과 검소와 절제와 만족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 내면적으로 일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외적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된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유기적으로 교통하는 몸(공동체)이라고 정의한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이자 학교이며 따라서 교회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성도들의 교통(또는 교제)은 두 개의 띠 곧 건전한 교리상의 일치와 형제 사랑에 의해 유지된다. 교리상의 불일치는 이단을 낳고, 형제 사랑의 결핍은 분열을 낳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전한 말씀 선포(케리그마),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코이노니아) 그리고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섬김(디아코니아)이 있어야 참된 교회이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복된 삶과 최종적 구원은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이 부활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종말론을 구원과 관련지어 다루었다. 다시 말하면, 제3권에서 믿음의 주요한 연습인 기도를 다루고 나서 예정론과 육체의 부활을 다룬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과 구원과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였고,

이 땅에서 죄 용서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이며,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것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삶과 소망을 찾아야 할 곳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신학사상은 이상에서 본대로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신학사상이 복음주의적인 것은 그의 사상의 원천이 신구약 성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과 루터의 신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어거스틴을 많이 인용함으로써 진리의 증인으로 삼았다. 그는 어거스틴을 성경의 가장 충실한 해석자로 간주하여 자유의지와 성례, 은혜와 예정을 다룰 때 전적으로 어거스틴의 논증을 사용했다.<sup>16</sup> 한편, 루터의 경우, 성경의 정경문제, 예정, 교회정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편재, 성찬 등에서 칼빈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주요한 교리들 곧 인간의 전적 부패, 원죄, 구속주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신칭의,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영감성,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 등에서는 전적으로 일치했다.<sup>17</sup>

칼빈의 복음주의적 신학사상이 한국장로교회에 「신학지남」을 통해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에 발간된 제16권 4집(통권 76호)이다. 남궁혁의 “칼빈 신학과 현대 생활”, 송창근의 “요한 칼빈의 일생”, 박형룡의 “칼빈의 예정론”, 채필근의 “칼빈의 교회관 교회정책”, 이눌서의 “칼빈 신학과 그 감화”, 나부열의 “성서 주석가로 본 칼빈” 그리고 곽안련의 “강단의 칼빈” 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1937년에 함일돈이 “칼빈주의”를 3회에 걸쳐(94~96호) 연재했고, 1938년에는 김태목이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예정 사상의 의의”를 3회에 걸쳐(101~103호) 발표했다.

「신학지남」이 1953년에 복간된 후로는 1954년에 명신흥이 “칼빈주의의 근본정신”(114호)을 발표하고, 박형룡이 “신학의 3대 체계”(115호)에서 칼빈주의를 소시누스 주의와 알미니안 주의와 대

16. 신복윤, “기독교 강요: 역사, 저작목적, 사상적 배경”, 『신학지남』 제44권 4집(1977년 겨울): pp. 9-10.

17. 상계서, pp. 13-14.

비하여 소개했으며, 그러다가 1962년에 칼빈 특집이 나왔다. 박형룡이 권두언으로 “칼빈의 현대적 의의”와 “칼빈 신학의 기본 원리”를 썼고, 안용준이 “칼빈의 생애와 사업,” 오병세가 “칼빈의 신국관,” 명신희가 “칼빈의 윤리사상,” 김희보가 “목회자로서의 칼빈,” 조동진이 “교회 통일과 분리에 대한 칼빈의 해석,” 한철하가 “칼빈의 정치론,” 신복윤이 “신학 용어 해설: 칼빈주의,” 그리고 한철하가 반틸의 “칼빈주의 문화개념”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의”에 대한 서평을 실었다. 이후로 1970년부터는 박윤선, 김의환, 신복윤 등이 집중적으로 칼빈과 칼빈주의를 연구하여 발표했다.<sup>18</sup>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성경주석들이 번역 출간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였다. 신복윤과 한철하가 1964년에 기독교강요 1권을 번역했고, 1977년에 김문제가, 그리고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가 1988년에, 그리고 2000년 김충호가 전권을 완역하여 한국 교회에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이종성이 휴 톰슨 커(H. T. Kerr)의 「기독교강요선」(1960년)을 번역 소개했고, 김재준이 1950년에 T. H. L. 파커의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1986년 김지찬이 재번역했음)을, 1959년에는 김재준이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을 발표했다. 그리고 1978년부터 칼빈의 신약성경주석이 완역되기 시작했다. 한편, F. L. 베틀즈의 「칼빈의 기독교강요 분석」(1983년)이 양견과 강명희에 의해 번역되었고, 이형기가 「기독교 강요 요약」(1983년), 나용화가 「칼빈의 기독교강요 개설」(1992년)을, 필립 홀트롭의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1995)을 박희석, 이길상이, 그리고 김준수가 「디지털 기독교강요」(2000)를 내놓음으로 기독교강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1971년)를 박영남이, 뵈트너의 「칼빈주의 예정론」(1972년)을 홍의표가, 헨리 미터의 「칼빈주의」(1976년)를 박윤선 김진홍이, 반틸의 「칼빈주의 문화관」(1972년)을 이근삼이, 니젤의 「칼빈의 신학」(1973년)을 이종성이, 존 머레이의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1976년)을 나용화가 번역하고, 이근삼이 「칼빈 · 칼빈주의」(1972년)를, 김성환이 「평신도를 위한

18. 참조 『신학지남』 제43권 4집(1976년 겨울): pp. 91-125. 1918년부터 1976년까지 발간된 신학지남 총목록이 실려 있다.

칼빈주의 해설(1969년)을, 정성구가 「칼빈주의 사상과 삶」(1978년)을 저술하였으며, 정성구가 펴낸 「칼빈의 생애와 사상」(1980년), 김남식이 편저한 「칼빈주의 연구」(1972년)에는 특별히 칼빈 연구에 관한 도서 목록을 각각 60여 페이지와 20여 페이지에 걸쳐 소개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에는 칼빈 연구가 활발해짐으로써 한국의 장로교회에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이 크게 발전되었던 것이다.

## 2.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학적 특징과 한국 내에서의 연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신학사상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sup>19</sup> 본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643년 7월이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의 예루살렘 회의실에서 칼빈의 신학을 전수받은 청교도적인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다. 1646년 12월에 초안이 작성되고, 1648년 6월에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신앙고백서는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전체 33장의 대전제로서 믿음과 생활의 유일무오한 규칙인 성경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1항에는 성경의 필요성, 2항에는 영감성(무위성과 무오성), 4항에는 신적 권위, 5항에는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과 성령의 내적 증거, 6항에는 명료성, 7항에는 충분성, 그리고 9항과 10항에는 성경의 최종성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제2장에서 18장까지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제19장에서 33장까지는 믿음의 생활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의 사역(2-5장), 인간의 죄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6-8장), 그리고 성령의 구원 사역(9-18장)을 다루었다. 구원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먼저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을 능히

19. 이종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한 기독교서회, 1961), p. 1.

구원하실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9장),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죄인을 복음의 말씀에 가지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거룩하게 하신다는 점(10-13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 회개, 선행(믿음과 회개의 열매임), 성도의 견인,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순서대로 진술하였다(14-18장).

이 신앙고백서는 제2-18장까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진술하는 한편, 제19-33장에서는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즉 믿음의 생활과 성도의 본분에 대하여 진술했다. 여기서는 특별히 성령의 은혜의 외형적 방편인 교회와 성례가 강조되어 있다. 한편, 소요리문답에 보면,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피하는 성령의 은혜의 내적 방편으로 믿음과 회개(85-87 문답)를, 그리고 은혜의 외형적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98-107).<sup>20</sup>

이로 보건대, 우리의 신앙고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신앙고백서의 큰 골격이 성경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신자의 본분으로서의 생활에 대하여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이 믿음과 생활의 기초요 규칙이라고 하면, 믿음은 생활의 뿌리요, 생활은 믿음의 열매이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구원을 이루시되, 믿음과 회개가 구원의 방편적 원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할 때 선행과 오래 참음과 구원의 확신이 열매로 나타난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는 성도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죄인과는 달리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힘써 하나님의 율법에 자원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배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sup>21</sup>

20. 소요리문답에서는 믿음과 회개가 71-73, 76 문답에, 말씀 선포는 155-160 문답, 성례는 161-177 문답, 그리고 기도는 178-196 문답에 소개되어 있다. 154 문답에는 은혜의 외적 통상적 방편으로 말씀, 성례, 기도를 예시했다. 그리고, 153 문답에서는 이 외적 방편을 부지런하게 사용할 때 회개와 믿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1. 참고,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0), pp 141-143.

이상에서 본대로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을 교리적으로 신조화시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1907년에 소요리문답을 번역하여 발간하여 사용하였고 미국의 장로교회가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1788년에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1917년에 채택하게 되었다. 합동측 총회는 1963년에 헌법으로 정식 채용했다. 1961년에는 이종성이 신앙고백서를 번역하였고, G. I. 윌리엄슨의 「소요리문답해설」(1978년)을 최덕성이, 골든 클락의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1980년)와 G. I. 윌리엄슨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1980년)를 나용화가 번역했으며, A. A. 하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1996)을 김종흡이 또한 번역하였다. 공부 교재용으로는 정훈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1974), 김남식이 「소요리문답해설」(1973), 김준삼이 「고백서 강해」(1981), 김의환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집」(1984), 정기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1988), 한국복음문서협회가 「소요리문답해설」(1978년), 그리고 최근에는 나용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2000년)를 출간하면서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새롭게 번역하기도 했다.

이로 보건대, 한국장로교회는 독노회를 창립하던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회에서 신봉하며 가르쳐 왔던 것이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권위있는 여러 권의 해설과 연구 교재가 번역되거나 저술됨으로써 교회가 효과적으로 신앙고백을 접하게 되어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위에서 더욱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 Ⅲ. 한국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의 실제적 근원

한국 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의 실제적 근원은 죠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와 존 위더스푼(John Witherspoon)에 의하여 1746년에 창설된 프린스톤 신학교의 찰스 하지(Charles Hodge)와 B. B. 워필드(Warfield)와 G. 보스(Geerhardus Vos), 그리고 프린스톤 신학교의 자유주의화 경향으

로 인하여 1929년에 개교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G. 메이첸(Machen), C. 반틸(Van Til), 존 머레이(John Murray)와 E. J. 영(Young), 그리고 박형룡이 자기의 교의신학을 저술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의존한 칼빈신학교의 L. 벌코프(Berkhof) 등을 손꼽을 수 있다.

한편, 한국장로교회를 설립한 초기의 미국 선교사들의 대다수는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이거나 메코믹(McCormic) 신학교 출신들로서 하지와 워필드의 제자들이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확고하게 신봉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이 한국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의 주요한 근원이었다. 이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찰스 클라크(Charles A. Clark), 이놀서(William D. Reynolds)와 라부엘(Stacy L. Robert), 어드만(W. C. Eerdmans), 그리고 함일돈(F. E. Hamilton) 등이 크게 신학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1.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자들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의 뼈대를 세우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세 거목은 조직신학의 대가 찰스 하지와 변증신학의 대가 워필드와 성경신학의 대가 G. 보스였다.

#### 1)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

찰스 하지는 19세기가 낳은 최고의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문자 그대로 충성스럽게 신봉했다.<sup>22</sup> 그는 1821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그의 생애 거의 전부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변증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로마서 주석(1835), 에베소서 주석(1836), 고린도전서 주석(1837), 고린도후서 주석(1839), 그리고 조직신학(3권1871-3)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

22. 김기홍, 『프린스턴 신학과 근본주의』(창조성, 1988), p. 71. 참고, F. L. Cross, ed.,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 643, 항목 "Hodge, Charles".

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신앙 위에 그의 신학을 세웠다.<sup>23</sup> 그리고 그는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크게 의존했다.<sup>24</sup> 하지의 신학은 그 자신이 내린 신학의 정의에 잘 요약되어 있다.

첫째,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 즉, 위격은 구별이 있으나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즉, 그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 사역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둘째, 인간론은 인간의 기원과 본질; 그의 본래의 상태와 시험; 타락, 죄의 본질; 아담의 첫 범죄가 그 자신과 후손에게 미친 영향을 포함한다.

셋째, 구원론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 또는 계획, 구속주의 위격과 사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적용; 중생, 칭의, 성화;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포함한다.

넷째, 종말론은 영혼의 사후 상태;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대심판과 종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들을 포함한다.

다섯째,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 속성, 특권, 그리고 조직을 포함한다.<sup>25</sup>

하지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시하고,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대로 믿었다.<sup>26</sup> 그는 성경의 영감, 무오성과 신적 권위, 초자연성과 자명성과 충족성을 믿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sup>27</sup>,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 지식의 전달이고, 영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

23. 참고 박용규, "찰스 하지의 신학사상," 『신학지남』 제 64권 3집(1997년 가을): pp. 270, 288 ;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I* (Grand Rapids : Eerdmans, 1973), p. 18.

24. 참고 박용규, 상계서, p. 273.

25. C. Hodge, *Systematic Theology I*, p. 32.

26. 상계서, p. 151; 참고, Mark A. Noll, *The Princeto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3), p. 133.

27. 상계서, p. 152.

씀의 무오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별하였다.<sup>28</sup>

## 2) B. B. 워필드(B. B. Warfield, 1851-1921)

프린스턴 신학의 최고의 변증신학자인 워필드는 1887년부터 1921년 죽을 때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하지 부자의 뒤를 이어 변증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쳤다.<sup>29</sup> 그가 변증학 강의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유럽에서 성행하기 시작한 슐라이엘마허의 주관주의적 신앙관(즉, 신앙은 절대자에 대한 의존 감정이라고 주장함)과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성경은 인간의 저작물에 지나지 않으며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함)이 미국 교회에 유입됨으로써 그 같은 인본주의적인 자유신학으로부터 정통주의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통적인 칼빈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충실하여 구원론과 성경의 영감과 신적 권위를 힘써 변호하였던 것이다.<sup>30</sup>

워필드는 인간의 자력 구원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주의 대신,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은혜로 온다고 하는 어거스틴주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베푼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 사상 대신,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 사역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복음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성부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알미니우스주의나,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기로 작정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구속적 은총을 선택된 자들에게만 적용하였다고 하는 아미랄드(Moses Amyrald, 1596-1664, 불란서)의 가설적 보편구원론(hypothetical universalism) 대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얼마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속하기로 하셨다고 하는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를 주장했

28. 상계서, p. 163.

29. W. Andrew Hoffercker, *Piety and the Princeton Theologians*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81), p. 95.

30. 김기홍, 『프린스턴 신학과 근본주의』, pp. 79, 81.

다.<sup>31</sup>

한편, 워필드의 뛰어난 공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변호한 것이다. 특별히, 자유주의의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경관을 고수하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오직 성경이요, 성경의 완전 축자영감교리를 확고하게 하였으며, 성경의 무오성과 신적 권위 등을 성경적으로 체계화시켰다.<sup>32</sup>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자체로서 권세가 있으며,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성경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성경은 무오하고 신임할 만하다고 주장하였다.<sup>33</sup>

워필드의 저술들은 크레이그(Samuel G. Craig)가 편집하여 출판한 것들로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1968),<sup>34</sup>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1970),<sup>35</sup>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1970),<sup>36</sup> 그리고 *Calvin and Augustine*(1974)<sup>37</sup> 등이 있다.

31. B. B. Warfield, *The Plan of Salv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0), pp. 25-26.

32. 김기홍, 상계서, pp. 83-84; 로버트 L. 레이몬드, 『개혁주의 변증학』 이승구역(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pp. 70-71.

33.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0), pp. 101, 131f.

34. 크레이그는 본서의 머리말에서 워필드의 생애와 사상을 4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상세하게 소개해 놓았다. 그리고 본서에는 초자연주의, 삼위일체교리, 구약의 메시아 사상, 구약의 성령, 예수의 초자연적 탄생, 죄의 전가, 예정에 대한 글들이 실려 있다.

35. 본서에는 워필드의 성경관에 대한 반틸의 상세한 글이 서론으로 소개되어 있다(pp. 3-68).

36. 본서에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양성을 성경적으로 진술하되 자유주의의 기독교론을 반박한 글들과, 구속주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로서의 십자가의 희생사역을 진술하되 자유주의의 속죄론을 반박한 글들이 실려 있다.

37. 본서에는 워필드가 칼빈의 신지식(神知識)과 삼위일체를 그리고 어거스틴의 참회록 등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지함 때문에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어거스틴과 칼빈의 사상을 밝힌 글들이 실려 있다.

### 3) G. 보스 (Geerhardus Vos, 1862-1949)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에게서 칼빈주의 신학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은 바 있는 보스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893년부터 1932년 은퇴할 때까지 약40년간 성경신학을 가르쳤다. 그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울만큼<sup>38</sup> 성경신학 분야에 있어서 개척자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 한국의 박윤선도 그의 성경신학에 크게 의존한 바 있다.<sup>39</sup>

보스가 칼빈주의 성경신학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구속사적 성경 계시의 교리적 신학적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진술한 데 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의 구속계시(redemptive revelation)는 유기적으로 펼쳐지는 역사적 과정(an organically unfolding historical process)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본질적으로 역사적 계시인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이 역사적으로 점진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focal point)을 이루기 때문에, 성경계시 또한 역사적으로 점진적이다. 그래서, 보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 축자적 자기 계시(the direct verbal self-revelation of God)로서 절대 필요했으며, 성경 해석학의 핵심은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한다”(Scripture interprets itself)였다.<sup>40</sup>

보스의 성경신학은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가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41</sup> 보스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성민국가로

38. Geerhardus Vos,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ed. by R. B. Gaffin, Jr. (N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80), p. xiv.

39. 박윤선, 『성경신학』(영음사, 1992), p. 3.

40. G. Vos,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p. xviii; G. Vo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80), pp. 6-8.

41. G. Vos, *Biblical Theology*: pp. 109 이하에서는 모세의 계시의 내용 가운데서 언약을 논하면서 출애굽의 구속 사건과 유월절, 십계명, 그리고 의식법을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기술하였고, pp. 372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구약의 왕국, 신약의 왕국, 왕국의 이중개념, 왕국의 본질, 왕국의 권세와 관련된 신앙과 회개, 그리고 왕국과 교회 등을 다루었다.

조직될 수 있었다.<sup>42</sup> 보스의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까닭에 「신학지남」이 제34권 2집(1967년6월)부터 3회에 걸쳐 번역 소개한 바 있고, 간하배와 박윤선의 지도와 감수 아래 정정숙이 보스의 「하나님의 나라」(1971년)를 번역 출판하였으며, 이승구는 「성경신학」(2000년)을 번역해 냈다.

## 2.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자들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보수하는 데 충성을 다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기수들로는 설립자인 메이첸과, 바르트 신학을 비판하는데 크게 기여한 변증신학자 반틸과,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을 발전시킨 조직신학자 존 머레이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복음주의 구약신학의 독보적 존재였던 E. J. 영이 있다.

### 1) G. 메이첸(Gresham Machen, 1881-1937)

1906년부터 1929년까지 23년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신학을 강의하고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36년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분리하여 정통장로교회(PCA)를 창립하고 초대 총회장이 된 그레삼 메이첸은 자신의 신앙과 학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는가 하면, 단순히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다른 종교(즉, 자유주의 기독교)로부터 보수하려고 투쟁하였다.<sup>43</sup>

한국 장로교회에 대한 메이첸의 영향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형룡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윤선이 그에게서 직접 배운 것과, 한국 교회의 초대 선교사들과 특별히 평양신학교의 교수들이 열렬한 메이첸의 지지자들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듯

42. 상계서, pp. 121-125.

43. 홍치모, "J. Gresham Machen 교수의 생애와 사상 (1)," 『신학지남』 제64권 3집(제252호, 1997년 가을): pp. 89, 94.

이<sup>44</sup> 참으로 절대적이었다. 메이첸과 더불어 한국 장로교회의 선교 사들과 박형룡, 박윤선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기록성,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적 죽음과 부활, 신체적 재림과 육체의 부활, 인간의 전적 타락 등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파괴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한 왜곡된 분파라기 보다는 다른 종교로 간주하여 철저하게 거부하였다.<sup>45</sup>

메이첸의 대표적인 저서는 *Christianity and Liberalism*(1923)이며, 다른 주요한 것들로는 *The Origin of Paul's Religion*(1921), *What is Faith?*(1927), *The Virgin Birth of Christ*(1930), 그리고 그가 서거한 후에 출판된 *The Christian View of Man*(1937)과 *The Christian Faith in the Modern World*(1938) 등이 있다.

메이첸은 어려서부터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던 까닭에 그의 신학은 하지 부자와 워필드의 신학을 이어 받아 철저한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였다. 그래서, 그는 참된 기독교는 하지와 워필드가 가르친 바 오직 칼빈주의 신앙 뿐이라 생각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로 성경이 전체적으로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임을 믿었고<sup>46</sup>,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순종의 생애, 대속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 객관적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것으로 또한 믿었다. 또한, 구원은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강조했다.<sup>47</sup>

메이첸은 세속적인 자유주의 사상으로부터 기독교를 방어하고자 투쟁했던 까닭에, 복음주의 교회를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특정한 메시지에 동의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공포된 신조대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연합된 한 무리의 공동체이다”<sup>48</sup>고 했다. 그래서, 메이첸의 교회관은 철저하게 신조주의적이며, 다

44.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pp. 297-298.

45. 상계서, p. 299.

46. G. Machen, *The Christian Faith in the Modern World* (Grand Rapids: Eerdmans, 1938), p. 37.

47. G.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23), p. 141.

48. 상계서, p. 168.

른 복음을 가르치는 신학 사상에 대해 극단적으로 비판적이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봉함으로 교리적으로 순수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sup>49</sup>

## 2) 코넬리우스 반틸(Cornelius Van Til, 1895-1987)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적 전통을 표본으로 삼아 철저한 칼빈주의에 기초한 기독교 철학을 제창함과 아울러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예리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한<sup>50</sup> 반틸은 1895년 화란에서 태어나 10세 때 미국으로 이민하여 칼빈 신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년 간 변증학 전임강사로 있다가(1928-1929) 메이첸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옮겨 변증학을 교수하다가 1981년에 소천하였다. 반틸의 주요 저서로는 *The New Modernism*(1947), *Common Grace*(1954), *The Defense of Faith*(1955), *Christianity and Barthianism*(1962), *The Case for Calvinism*(1964)이 있고, 이중에 *The Defense of Faith*는 신국원이 「변증학」(1985)이란 이름으로 번역 출간했다.

반틸은 기독교를 잘 변증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개혁주의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1</sup> 즉, 성경에 담겨 있는 진리 체계를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쳐 준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틸의 변증은 방법론에 있어서 비기독교인에게도 있는 신의식에서 접촉점을 찾는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죄로 인하여 이성이 어두워졌고 전적부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복음의 진리를 철저히 거부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이성을 성령께서 중생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비기독교인들을 향해 기독교를 변증

49. 김기홍, 『프린스턴 신학과 근본주의』, pp. 118, 121-122.

50. 박아론, 『기독교의 변증』(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pp. 48, 61.

51. 코넬리우스 반틸, 「변증학」신국원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20. 반틸은 제1장에서 기독교의 신학을 간추려 소개하였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52</sup>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곧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비기독교인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믿는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방편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정확무오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이 성경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권세가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적 변증은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와 성경의 권세를 의지하여 비기독교인들의 신의식을 향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쓴다.<sup>53</sup> 그래서, “개혁주의 변증가는 아예 그의 대적을 만나는 처음 순간에 그의 장갑을 벗어 던져 결투를 신청하고 생사가 걸린 결투에 필사적으로 도전해 들어간다.”<sup>54</sup> 이렇듯 반틸은 기독교 자체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기독교적 철학과 정면으로 부딪혀 신적 권세가 있는 성경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어 놓은 신의식(sense of divinity)과 성령의 중생케 하는 능력과 성경 진리의 진실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sup>55</sup>

### 3) 존 머레이 (John Murray, 1898-1975)

메이첸과 반틸과 함께 존 머레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1930년부터 줄곧 신학을 가르쳐 왔다. 그는 특별히 칼빈 연구의 권위자로서 워필드를 계승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인물이다. 스코틀랜드 태생인 그는 글라스고우 대학을 졸업한 후 1924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하여 G. 보스와 O. T. 엘리스, 그리고 G. 메이첸에게서 수학했다(한국의 박형룡도 이 때 함께 공부했다). 1929년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조직신학 강사직을 맡기 위해 부임하였으나 그 이듬해에 메이첸의 간청으로 웨스트민

51. 코넬리우스 반틸, 『변증학』 신국원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20. 반틸은 제1장에서 기독교의 신학을 간추려 소개하였다.

52. 상계서, pp. 74-76, 122, 125.

53. 상계서, pp. 130, 136, 137, 141.

54. 상계서, p. 145.

55. 박아론, 『기독교의 변증』, pp. 58-61; 참고, 김의환, 『현대신학개설』(개혁주의 신행협회, 1989), pp. 116-120.

스터 신학교로 옮겨왔었다. 존 머레이의 소원은 워필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석가요 성경신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34년에 로마서 주석을 썼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좋아하여 주일날에는 야구와 같은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삼가 했을 뿐 아니라, 주일날 기차나 버스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몇 십리 떨어진 곳에 설교 초청을 받으면 토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돌아왔다고 한다.

머레이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1961), *Christian Baptism*(1952), *Divorce*(1953), *The Imputation of Adam's Sin*(1959), *Principles of Conduct*(1957),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1956), *The Epistle to the Romans*(1959) 등이며, 그의 글들이 네 권의 전집(*Collected Writings*)으로 출간되었다.

머레이의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은 성경을 하나님의 성문화된 말씀으로 보고 칼빈이 유기적 완전 축자영감론과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고 가르쳤다는 것과, 칼빈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밝혀 놓았다. 이로써,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의 정통적 성경관과 주권 사상을 확고하게 하였다.<sup>56</sup> 그리고 머레이의 「구속론」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죄의 본질에 대하여 희생(sacrifice), 화해(propitiation), 화목(reconciliation), 구속(redemption)으로 이해하고 이 속죄가 그리스도의 이중의(적극적, 수동적) 대리적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밝혔다.<sup>57</sup>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속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가를 소명(calling), 중생, 신앙과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오래 참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화 등의 순서로 논하였다.<sup>58</sup>

머레이의 「기독교 윤리」는 게할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에 나타난 계시의 역사성과 유기적 연속성을 성경 윤리에 적용하여 죄로 죽

56. 존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76), pp. 17-18, 57-59, 84-85.

57. 존 머레이, 『구속론』 하문호 역 (성광문화사, 1979), pp. 16-17, 25.

58. 상계서, pp. 106-114; 박형룡이 머레이의 구속론에 크게 의존하여 그의 구원론을 기술한 사실은 한국장로교회에 대한 머레이의 신학적 영향력을 잘 말해 주고 있다.(참고, 박형룡, 『박형룡저작전집』 V(구원론), pp. 28, 32.)

은 자들을 생명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는 하나님의 힘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점에서 기독교 윤리의 원동력인가를 밝혔다.<sup>59</sup>

박문재가 번역 소개한 머레이의 글들로는 성경의 무오성, 궁극성, 충족성 및 신구약의 통일성에 관한 것들; 교회의 본질로서의 유형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연합의 성경적 기초, 공동체적 책임, 교회의 통일성, 교회 정치의 형태, 직분, 성례 등 교회에 관한 상당수의 글들; 사람의 기원과 성질,<sup>60</sup> 사람의 타락과 무능력, 죄의 본질 등 인간에 관한 것들; 확정적 성화<sup>61</sup>와 점진적 성화, 성화의 모범과 목표 등 성화에 관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 글들을 보면 머레이가 성경신학의 토대 위에서 조직신학을 얼마만큼 발전시켜 놓았으며,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노선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찰스 하지와 워필드의 뒤를 이은 칼빈주의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sup>62</sup>

#### 4) 에드워드 영 (Edward J. Young, 1907-1968)

20세기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의 구약신학자로서 한국 장로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에드워드 영이다. 일찍이 그의 「구약총론」(1972)를 홍반식과 오병세가 번역했고, 1969년 박윤선이 이사야서를 주석할 때 영의 *My Servants the Prophets, Who Wrote Isaiah?, Studies in Isaiah* 등에 크게 의존하였으며,<sup>63</sup> 또한 정규남의 「구약개론」(1985)도 영의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을 크게 활용하였고,<sup>64</sup> 윤영탁이 영의 「이사야 53장」(1980)을 번역

59. 존 머레이, 『기독교 윤리』 김남식 역 (성암사, 1975), pp. 5, 266, 261.

60. 머레이는 인간의 본질을 영육통일체(psychosomatic being)로 보고 삼분설이나 이분설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일축한다. 참고, 존 머레이, 『조직신학』II 박문재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pp. 32, 43.

61. 머레이는 점진적 성화와는 별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초에 일어나는 어떤 결정적인 행위로서 확정적 성화를 주장한다. 참고, 존 머레이, 상계서, p. 290.

62. 참고, 존 머레이,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p. 9.

63. 참고, 박윤선, 『이사야서』상 (영음사, 1985), p. 21.

64. 참고, 정규남은 그의 「구약개론」에서 영의 「구약총론」을 자주 인용하고 있

한 것 등에서 그의 신학적 영향을 읽을 수 있다. 에드워드 영은 1936년부터 1968년 임종시까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구약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칼빈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옹호하고 구약신학을 발전시켰다.

“구약에 대한 보수적 연구사”의 초두의 글에 그의 신학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계시이다.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는 데 적절한 배경을 제공해 준다. 구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하나님이 그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발표하였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는가를 말한다. 구약은 예표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지시해주며, 구약의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중략) 만일 구약이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지창조와 세상에 있는 죄의 기원과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신다는 약속에 관한 권위 있는 계시를 빼앗겼을 것이다. 만약 구약을 버린다고 하면 기독교의 기초가 약화될 것이다. ... 구약만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신약의 계시도 함께 포기되고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다.<sup>65</sup>

영은 성경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기독교 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sup>66</sup> 그는 위필드의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가르침에 동의하여 성경말씀을 신적 위엄의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는 기초 위에서 구약개론을 연구한 구약학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영을 꼽았다(정규남 『구약개론』(개혁주의 신행협회, 1985), p. 26.)

65. 에드워드 영, “구약에 대한 보수적 연구사,” 『신학지남』 제36권 2집(1969년 여름): pp. 31-32.

66. 참고 E. J. 영, 『이사야 53장』(성광문화사, 1980), p. 3.

말씀으로 알고서<sup>67</sup> 성경의 영감과 무위성과 무오성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변호하여 *Thy Word is Truth*(1957)를 저술한 바 있다.

### 3. 칼빈 신학교의 신학자:

#### 루이스 벌코프 (Louis Berkhof, 1873-1957)

루이스 벌코프의 *Systematic Theology*(1941)가 출간되자 마자 그 이듬해부터 박형룡이 그것을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한 사실과, 신복윤이 벌코프의 *Manual of Christian Doctrine*(1933)을 1958년에 번역하여 낸 사실 및 고영민이 1978년부터 80년에 벌코프의 조직신학서론을 포함하여 전권을 번역하고, 이어서 권수경과 이상원이 그의 「조직신학」(1991)을 그리고 서윤택이 「조직신학 개론」을 번역해 낸 사실로 미루어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얼마나 벌코프를 선호했는가를 알 수 있다.

루이스 벌코프는 화란 태생으로 아홉 살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1900년에 칼빈 신학교를 졸업하고 1904년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06년부터 1914년까지는 해석신학을,<sup>68</sup> 1914년부터 1926년까지는 신약신학을,<sup>69</sup> 그리고 1926년부터 그가 은퇴하던 1944년까지는 조직신학을 칼빈신학교에서 강의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조직신학은 성경에 잘 기초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찰스 하지와 위펠드의 신학을 전수받은 까닭에 그의 신학은 철저한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였다.

벌코프에 의하면,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곧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사명은 먼저 성경의 진리를 포괄적으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역사적 칼빈주의 신학의 전통을 따라 진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의 과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경에 계시된 진리들을 포괄적으로 취급하여 계시의존적 신앙에 의지하여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학의 유일한 원천적 재료이고 교리에

67. E. J. 영, 『구약총론』, 홍반식 오병세 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2), p. 5.

68. 성경해석학과 관련하여, 벌코프는 *Biblical Interpretation*(1937)을 저술했다.

69. 신약신학과 관련하여, 벌코프는 *Life Under the Law in a Pure Theocracy* (1914), *Biblical Archaeology*(1915), 그리고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1915)를 저술했다.

대한 최종적 판단 기준이며, 신학은 항상 교회 중심적이어야 한다.<sup>70</sup>

#### 4.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사들

한국에 청교도적 정통 장로교회가 개신교 가운데서 맨 처음 세워지고, 청교도적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을 전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섭리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진 평양은 1866년(고종 3년) 민비가 왕비가 되던 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함으로써 순교 성시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졌다. 1876년 중국의 서간도에 최초의 한인 장로교회가 백홍준, 서상륜에 의해 세워졌고, 국내에는 백홍준이 1883년에 평안도 의주에 그리고 서상륜과 서경조가 1884년 솔내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들을 세운 백홍준, 서상륜, 서경조 등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었다.

한편, 1882년 임오군란과 관련하여 박영효 등이 일본에 수신사로 가던 때 그들과 동행하였던 이수정이 일본에서 미국 뉴잉글랜드 출신의 청교도적 장로교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는 한국에 청교도 신앙과 생활이 절대 필요함을 절감하여 미국에 선교사 파송을 청원하였고, 이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위해 오게 되었다.

그리고 5년 후 언더우드의 뒤를 이어 마포삼열 선교사가 들어와서 서상륜의 안내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때 마포삼열은 자신이 머물던 한 여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십여년 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한문 성경이 벽지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평양이 선교와 순교의 성시인 것을 직감하고 평양을 선교 거점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평양에 선교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신학교와 숭실학교가 세워졌고 여기서 청교도적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훈련받은 신앙인들과 신학자들(예, 박형룡, 박윤선, 명신홍)이 배출되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은총이었던 것이다.

70. 참고 김의환, 『현대신학개설』 p. 113.

한국 장로교회에 가장 크고 많은 영향을 미쳤던 초기의 선교사로는 1890년에 파송된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1864-1939), 1902년에 파송된 콕안련(Charles A. Clark, 1878-1961), 1892년에 파송된 이눌서(William D. Reynolds, 1951 사망), 이눌서의 뒤를 이은 구레인(J. C. Crane)이 있고, 1907년에 파송된 라부엘(Stacy L. Robert), 1906년에 파송된 어도만(W. C. Eerdmans), 1920년에 파송된 함일돈(F. E. Hamilton) 등이 있다. 이들 선교사들은 평양 신학교의 설립자들이요,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전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충실하고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및 초자연적 특성을 확실히 믿고 보수하였다.<sup>71</sup>

### 1) 메코믹 신학교 출신 선교사들

미국 중부의 프린스턴 신학교로 불리는 메코믹 신학교는 북장로교회의 교단 신학교로서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신학교 출신 선교사는 마포삼열과 콕안련이었다. 이들은 "조선 북장로 신교회의 종교 변호 선언서"(1927)에서 밝힌대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의 이적,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재림 등을 확신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절대 무오한 책임을 믿었다.<sup>72</sup> 한국장로교회의 아버지였던 마포삼열은 평양신학교의 초대 교장(1902-1924년)이요 평양숭실대학 학장(1918-1928)이었으며, 1907년 한국 최초의 독노회의 노회장으로서 한국장로교회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콕안련은 40년동안(1902-1941년) 평양신학교의 교수로서 목회학과 설교학 등 5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이들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하지와 워필드의 신학사상을 이어 받은 철저한 보수주의자들로서 성경의 유기적 완전축자영감을 믿고 가르쳤던 것이다.<sup>73</sup>

71.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pp. 69-70.

72. 참고, 박용규, 상계서, p. 73, 각주 26.

73. 박용규, 상계서, pp. 74-81; 참고, 김남식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사』 I, p. 104.

## 2) 유니온 신학교 출신 선교사들

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강력하게 변호한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의 유니온 신학교 출신인 이늘서와 구레인이었다. 이들은 미국 남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보수성을 잘 반영하여, "기독교가 성경을 버리거나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성경의 문자나 절구를 고친다든지 그 정신을 덮어 놓든지 그 의미를 굽힌다든지,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sup>74</sup>고 했다.

이늘서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A. A. 하지의 *An Outline of Theology*를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초자연적 요소를 성경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 앞에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약속이자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서, 그것 없이는 구속주가 될 수 없었다고 단언했다.<sup>75</sup> 구레인은 프린스턴 신학교가 신학적으로 변질되자 거기에 가서 그들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고 나서 그들의 약점과 문제점을 비판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성경의 복음을 변호했다.

## 3)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 선교사들

1920년대까지는 메코믹 신학교 출신의 마포삼열과 광안련 선교사가 평양신학교를 주도한 반면, 1920년대 후반부터는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인 라부열, 어도만, 함일돈 선교사가 서서히 주도하기 시작했다. 라부열이 1925년부터 평양신학교 교장이 되면서 평양신학교는 신학적으로 더욱 더 전투적인 복음주의로 기울어졌다. 특별히 변증학 교수인 함일돈은 *The Basis of Christian Faith* (Eerdmans, 1952)에서 워필드와 메이첸의 신학적 전통을 따라 성경의 무위성과 무오성을 강조하여 이렇게 말했다. "만일 성경이 역

74. 재인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선교70주년설교집』중권 (역대총회장설교집) (총회교육부, 1955), pp. 14-16; 김의환, 『복음주의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p. 231.

75. 상계서, p. 91; 김남식 간하배, 『한국장로교 신학사상사』, pp. 198-200.

사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안내자가 될 수 없으며 성령의 인도와 통제 아래 기록된 책으로 고려될 수도 없다.<sup>76</sup> 그는 유기적 영감론에 대하여, 성경이 정확무오한 말씀이 될 수 있게 성령이 신구약의 저자들을 지도하고 보호하여 그들의 자료, 문체, 그리고 용어들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구원, 역사, 과학, 그리고 지리 등 세부 문제까지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다.<sup>77</sup>

이렇듯 초기의 선교사들은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신적 권위에 기초한 프린스턴 신학과와 전통을 이어받아 강력한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를 확산시켰던 것이다.<sup>78</sup> 그래서 평양신학교가 강조하는 유일한 교과과는 성경이었고, 신학교 교리 강령 제1조는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며,<sup>79</sup> 1907년 대부흥을 가져온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핵심도 성경연구 모임을 통한 훈련이 있었다.<sup>80</sup> 성경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받고 사랑한 까닭에 대부흥이 가능했던 것이다.

#### IV.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의 두 거목

찰스 하지의 *Systematic Theology*(3권), 워필드의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메이첸의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그리고 반틸의 *The Defense of Faith* 등을 축으로 삼고,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초석으로 하여 한국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의 뼈대를 세운 두 거목은 조직신학자 박형룡과 성경신학자 박윤선이다. 이들은 마포삼열이 세운 평양 숭실학교에서 청교도적 칼빈주의 신앙으로 교육을 받은

76. 재인용, 상계서, p. 99; F. E. Hamilton, *The Basis of Christian Faith* (Eerdmans, 1952), p. 185.

77. 재인용, 상계서, p. 101; Hamilton, 상계서, p. 291.

78. 박용규, 상계서, pp. 132-134.

79. 상계서, pp. 132-133.

80. 상계서, pp. 113-120.

후에, 박형룡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923년부터 1926년까지 메이첸에게서 배웠고, 박윤선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메이첸 밑에서 1934년부터 1936년까지 그리고 반틸 밑에서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배운 까닭에 박형룡과 박윤선은 선후배로서 서로 협력하였다.

## 1. 박형룡의 신학사상

한국의 메이첸으로 불리우는 박형룡은 189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평양승실전문학교(1920년)와 중국 남경 금릉대학을 졸업하고(1923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923년부터 1926년까지 공부하고(신학 석사학위 취득) 미국 남침례교 신학대학에서 변증학을 더 연구하여 1927년에 귀국한 후 1933년에 철학박사 학위를 얻었다. 그는 1930년부터 평양신학교에 임시교수로 첫 발을 내딛은 후 193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전임교수가 되어 변증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쳐 오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신학교가 일시 폐교됨에 따라 망명생활(1938-1947년)을 했으며, 1947년 귀국하여 잠시 고려신학교에 머물렀으나 1948년 장로회신학교, 1953년 총회신학교 교장과 교수로 1972년까지 신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1978년 소천하였다.

박형룡의 생애와 신학 사상에 대한 연구는 그의 아들 박아론이 「기독교의 변증」(1988) (pp. 64-84)에서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성구가 「총신과 박형룡 박사」(1989년3월)라는 책자(157페이지)를 통해 총신의 역사와 신학지남과 관련지어 다루었으며, 김의환이 「현대신학개설」(1989년9월) 가운데 “박형룡 신학”이라는 장에서(pp. 238-260) 논하였다.<sup>81</sup> 그러나, 박형룡에 대한 연구가 집대성된 것은 박용규가 엮어낸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1996년)이다. 그리고,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집: 박형룡의 신학과 한국 교회 / 탄생 100주년에 즈음하여” (「신학지남」통권 252호, 1997년 가을호) 에서 그의 신학이 평가되었다.

81. 박아론은 박형룡의 저작과 신학 논문을 소개해 놓았고, 그의 신학의 내용과 범위, 신학의 특색, 신학의 역할 등을 다루었다.

82. 김의환은 나중에 『복음주의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2000)에서 박형룡 신학을 재정리하여 “박형룡의 역사적 의의”(pp. 282-290)를 추가하였다. 이 글은 『신학지남』(통권 252호)에 실린 바 있다.

박윤선이 신구약 66권 전부를 주석함으로써 한국장로교회의 신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데 비하여, 박형룡은 변증학, 험증학, 현대신학선평을 비롯하여 기독교 교의신학 전반에 걸쳐 저술하였고 수많은 논문들을 모아 열 네 권의 저작전집을 내어 놓음으로써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공헌을 하였다.

그의 탁월한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고 하면, 청교도적인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들과 프린스턴 신학교의 메이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찰스 하지, A. A. 하지, B. B. 워필드와 루이스 벌코프 등의 신학을 전수받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을 교리와 규례의 표준으로 채용하여 성경적으로 체계화시킨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sup>83</sup>

그러므로 그의 신학의 특색은 하나님의 초자연계시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무오성과 신적 권위를 믿고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 규칙으로 삼는 신앙이다.<sup>84</sup> 그리고 그의 신학의 역할은 지로적(地路的)이다. 즉, 한국교회에 대하여 신앙적이며 특별히 교리적인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sup>85</sup> 그가 구미의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의 신학을 크게 의존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sup>86</sup>

그의 신학의 원리는 본체적 원리로서 하나님, 객관적 외적 원리로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 그리고 내적 원리로는 이성과 신앙이다. 바빙크와 벌코프는 이성을 제외시킨 데 반하여, 박형룡은 찰스 하지와 워필드를 따라 계시를 수납하고 판단하는 권위가 이성에 있음을 인정하였다.<sup>87</sup>

박형룡의 역사적 의의는 그가 한국 장로교회의 확고한 장로교 신학을 정립시키고,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을 확실하게 막아냈으며,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을 한국 장로교회의 중심신학으로 자리매김한 데 있다.<sup>88</sup>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는 장로교회

83. 참고, 박아론,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신학”, 박용규 엮음,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충신대학교 출판부, 1996), p. 146;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제43권 3집(1997년 가을), p. 11.

84. 상계서, p. 148.

85. 상계서, p. 152.

86. 상계서, p. 154.

의 칼빈주의적 신학사상을 말이나 글로 주장하는 한편, 소극적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비판하고 공격함으로써 한국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를 고수할 뿐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의 중심 신학이 되게 하였다.<sup>87</sup>

박형룡의 신학은 메이첸의 경우처럼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를 방어하느라 전투적 자세를 견지하는데 힘 쓴 나머지, 칼빈주의 신학을 몇 가지 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김의환과 신복윤이 지적한 대로 세대주의적인 뉘앙스가 남아 있어서 분리주의적 성격이 있는가 하면,<sup>90</sup> 사회 문화적 책임을 무시하는 까닭에 개인주의적이요 도피주의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sup>91</sup> 이는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격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위격 공동체로 이해하는 일, 인간을 섬김과 사랑의 사랑을 나누는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는 일, 죄를 사회구조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일, 그리고 종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세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지어 논하는 일 등에서 아직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sup>92</sup>

## 2. 박윤선의 신학사상

기도를 생활화하신 분, 기도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스럽게 하신 분, 매일 새벽 총신대 뒷산에 올라가 두세시간씩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분, 기도를 생활로 가르쳐 주신 분, 또한 하나님께 꼭 붙잡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 가신 분, 성경을 성경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고 말씀의 깊

87. 차영배, "박형룡신학의 원리", 박용규 엮음, 상계서, pp. 408, 420-422.

88. 김의환, 『한국복음주의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pp. 282-289.

89. 신복윤, "박형룡 신학의 한국 보수신학사적 의의", 박용규 엮음, 상계서, p. 489.

90. 김의환, 상계서, p. 278.

91. 신복윤, 상계서, p. 491.

92. 참고, 내용화, "박형룡의 교의신학에 대한 발전적 평가", 『신학지남』 제64권 3집, p. 87.

은 뜻을 발견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힘을 얻으신 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 주신 분, 겸손과 진실의 사람, 얼굴에는 항상 잔잔하고 순박한 소년의 미소가 깃들어 있고 가식이나 꾸밈을 모르는 분, 소극적 분리주의의 근본주의 대신에 하나님 중심의 뜨거운 신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적극적 포용과 교제의 삶을 강조하신 분, 세상에 무관심한 반문화주의가 아니라 사회 문제와 구제사역 등에 적극적 관심을 나타내신 분,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의 곧 개혁주의적 삶을 몸소 실천하신 분, 그래서 한국장로교회 안에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을 글과 가르침과 삶을 통해 확실하게 심어주신 분이 바로 정암 박윤선이다.<sup>93</sup> 경건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지도자이신<sup>94</sup> 박윤선을 하나님께서 박형룡과 함께 하나로 묶어 한국장로교회를 바른 바위(正岩) 위에 대나무산(竹山)되게 하신 것이다.

박윤선은 1905년 12월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평양 숭실전문학교(1931)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193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박형룡의 소개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하여 메이첸과 반틸 그리고 스톤하우스(N. B. Stonehouse) 아래서 주석가로서의 소양을 쌓을 뿐 아니라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를 심도있게 배웠다. 그는 1936년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했으나 1938년 다시 도미하여 더 연구하기도 했다. 그는 1940년에 박형룡과 함께 만주의 봉천신학원에서 교수로 잠시 가르치다가 1943년 사직하고 성경주석 집필을 시작했다. 해방 후 1946년부터 60년까지 부산의 고려신학교에서 교장과 교수로서 활동하였고, 1963년부터 80년까지는 사당동 총신대학에서, 그리고 1980년 이후로 1988년 소천할 때까지 수원의 합동신학 대학원에서 성경주석 뿐 아니라 변증학, 칼빈주의, 조직신학, 교회사 등 신학 전반을 가르치셨다. 또한 40년간에 걸쳐 필생의 과업으로 주석을

93. 김명혁, "내가 좋아하던 박윤선 목사님", 『신학정론』 제7권 2호(1989년 12월): pp. 159-160.

94.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 연구", 『신학지남』 제58권 2집(1991년 여름): p. 11.

집필하여 1979년 10월 9일 신구약 주석 총 20권을 완간하고 총신대학 강당에서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해내었다.<sup>95</sup>

박윤선의 신학은 그가 쓴 “우리의 성경”<sup>96</sup>과 『성경신학』(1971년)<sup>97</sup>에 잘 나타나 있고 정성구가 쓴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 연구”<sup>98</sup> 그리고 「정암 박윤선 추모 특집: 신학 정론」(제7권 2호)에 잘 정리되어 있다. 박윤선은 근본주의라는 용어 보다는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를 선호했고,<sup>99</sup> 헨리 미터의 「칼빈주의」를 번역하여 가르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철저한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자였다. 그래서 그의 신학의 원리는 계시의존 신앙이었다. 인간의 자율주의적인 이성과 지혜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까닭에 중립적일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sup>100</sup>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알려주는 것으로서, 신현(theophanie)과 예언 이적 등의 방법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계시는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사실들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그의 계시를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산 음성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과거에 기록되던 때에 영감되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영감을 계속 주는 책이다. 즉, 성경은 기록될 때 뿐 아니라 읽을 때에도 성령이 감동한다고 박윤선은 믿었다.<sup>101</sup>

그는 “우리의 성경”에서 칼빈과 칼빈주의의 성경관, 예수와 사도들, 어거스틴과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경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95. 상계서, pp. 14-17; 참고,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신학정론』 제7권 2호 (1989년 12월): pp. 162-187.

96. 『신학지남』 제34권 2집 (1967년 3월): pp. 5-32.

97. 영음사에서 1971년에 출판되었다.

98. 『신학지남』 제58권 2집 (1991년 여름): pp. 11-56.

99. 박용규, 『한국 장로교 사상사』, p. 305.

100. 박윤선, “우리의 성경”, 『신학지남』(1967, 3): pp. 5-7.

101. 상계서, pp. 9-10.

백의 성경교리 등을 소상하게 소개하면서 B. B. 워필드와 바빙크의 글들을 많이 인용함으로써 한국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성경관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였다.<sup>102</sup>

박윤선의 성경주석의 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장 9항, “성경의 해석을 위한 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을 따라 성경이 바로 성경의 해석자라는 것이다.<sup>103</sup> 그는 G. 보스의 성경신학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성경을 역사적 계시로 보고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했다.<sup>104</sup>

그래서, 박윤선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성과 신적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등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적 교리들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이 같은 신학적 이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와 긍휼에 감격하여 소망 중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sup>105</sup>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박윤선을 한국이 낳은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로 평가하는 것이다.<sup>106</sup>

### 3. 명신홍의 신학사상

1960년을 전후하여 한국 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이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신학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명신홍이다. 즉 통합과 합동이 분열하면서 통합측이 문교부의 승인을 받고 미국 선교사들의 후원을 얻어 장신대를 세워 칼 바르트의 신정통신학의 기치를 높이 들 때, 합동측은 총회신학교를 제대로 세워 나가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이 때 직장암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배에 구멍을 뚫어 창

102. 상계서, pp. 13-23.

103. 정성구, 상계서, p. 19; 박윤선, “성경해석 방법론”, 『신학지남』(1966년 6월): pp. 19-20; 참고, 권성수, “박윤선 박사의 성경해석학” 『신학정론』(1989년 12월): pp. 241-248.

104. 유영기, “계약신학적 입장에서 본 박윤선 신학”, 『신학정론』(1989.12): pp. 266-267.

105. 상계서, pp. 268-271.

106. 홍치모,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신학정론』(1989.12): p. 199.

자를 연결해서 배설물을 몸밖으로 나오게 하는 아주 불편한 몸을 이끌고 미국에 건너가 6개월에 걸친 수고 끝에 거액을 얻어다가 총신의 옛 본관 건물을 지어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의 요람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명신홍이다.<sup>107</sup> 그리고, 그는 자기가 모아온 5000여 권의 장서를 기증하여 후학들이 복음주의 신학을 연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명신홍은 1904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하여 1919년 평양 숭실학교를 입학하여 건강상 이유로 중간에 휴학한 일이 있어 1926년에야 졸업했다. 그 후 잠시 일본 유학 후 1936년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하여 1939년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전쟁으로 인하여 귀국할 수 없게 되자 칼빈 신학교(1939-1941)와 뉴욕의 비브리칼 신학교(1941-1943)에서 또다른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년여 동안 미국 국무성에서 일하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미군과 함께 귀국했다. 그는 대구 서문교회(1946-1956)에서 목회를 하였고, 교회를 사임하던 그 해에 총회신학교 교수로 설교학과 기독교 윤리를 1969년까지 가르치셨다.

명신홍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칼빈 신학교에서 5년간이나 조직신학을 전공했던 까닭에<sup>108</sup> 그의 신학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로 뼈대가 튼튼하게 세워졌다. 그래서 통합측과 분열하던 때 장신대로 여러 교수들이 옮겨갔으나 명신홍은 유일하게 박형룡과 함께 총회신학교를 지켰고, 신학교 건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명신홍이 쓴 “칼빈주의의 근본정신”과 “칼빈의 윤리사상” 그리고 “주 예수의 천국관”<sup>109</sup>과 저서인 「개혁과 윤리학」(예수교 문서선교회, 1971)은 그가 칼빈주의를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체계로 이

107. 정성구 편, 『명신홍 박사 전기 : 신학교육과 목회』(총신대학교 출판부, 1997)에 실려 있는 “총신본관 신축 모금일기”(pp. 85-165)는 명신홍의 신앙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진한 감동이 있다.

108. 상계서, p. 220.

109. “칼빈주의의 근본정신”은 『신학지남』(1954) 통권 114호에, “칼빈의 윤리사상”은 『신학지남』(1962) 통권 122호에, 그리고 “주 예수의 천국관”은 『신학지남』(1967년 6월, 12월, 1968년 3월) 통권 137, 139, 140호에 실려 있다.

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 사상으로 파악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sup>110</sup> 그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지어 예정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의지와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제한적 속죄는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한 속죄로, 유효적 은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 얻을 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리고 성도 견인의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계속으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sup>111</sup>

“칼빈의 윤리사상”을 보면 명신홍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용하여 개혁주의 윤리를 잘 소개해 놓았다. 그래서 그의 「개혁파 윤리학」은 어거스틴과 칼빈, 요나단 에드워즈, 아브라함 카이퍼, 하지 부자, 그리고 그의 스승 반틸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바 그의 뜻을 실행함이 곧 우리 신앙 생활의 근본 이상”<sup>112</sup>임을 밝혀 성경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이상을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두었다.<sup>113</sup>

그리고, “주 예수의 천국관”은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간파하였고, 천국의 개념을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로 이해하였으며,<sup>114</sup>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 언약과 관련지어 이해하되 영적 우주적 나라와 현세적 국가적 나라로 나누어 소개하였는가 하면,<sup>115</sup> 현재적 이미 실현된 나라와 미래적 아직 실현되지 않은 천국을 구별하되 이 둘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sup>116</sup> 명신홍은 벌코프의 입장을 따라 전천년기설 대신 무천년기설을 지지하였다.<sup>117</sup>

이로 보건대 명신홍은 칼빈주의적 조직신학의 토대 위에서 설

110. 정성주 편, 상계서, p. 243.

111. 상계서, pp. 244, 246, 248, 250.

112. 명신홍, 『개혁파 윤리학』(예수교 문서선교회, 1971), “저자의 말”.

113. 상계서, p. 116.

114. 『신학지남』(1967.6)(137호): pp. 2, 4.

115. 『신학지남』(1967.12)(139호): pp. 5, 7.

116. 『신학지남』(1968.3)(140호): pp. 57, 60.

117. 상계서, p. 61.

교학과 윤리학을 가르쳤으며, 이로써 한국 장로교회의 강단이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박형룡의 조직 신학과 박윤선의 주경신학이 명신홍의 설교학과 기독교 윤리학을 통해 한국 장로교회 강단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셈이다.

## V. 한국 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의 발전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는 1900년 이후로 고려신학교(지금은 고신대학교)와 총회신학교(지금은 총신대학교) 그리고 1980년 이후로는 개혁신학연구원과 합동신학교(지금은 합동신학대학원) 등과 함께 그리고 복음주의신학회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 1. 고려신학교 (고신대학교)

해방후 자유주의 신학의 교육 기관인 조선신학교(지금은 한신대학교)에 대한 보수주의 신학의 교육 기관으로 1946년 9월에 고려신학교가 설립되어 박윤선 목사를 교장서리로 모셨다. 그리고 1947년 9월에 박형룡이 교장에 취임함으로써 보수신학의 요람이 되었다. 그러나, 1948년 박형룡이 서울로 올라가 총회신학교를 복구한 일과, 1961년 총회신학교와 병합되었다가 1963년 다시 환원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오병세, 홍반식, 이근삼 등이 미국과 화란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를 크게 발전시켰다.

오병세와 홍반식은 E. J. 영의 「구약총론」을 1972년에 번역 출간하였고, 박윤선의 지도 아래 영의 「현대구약신학연구」도 번역하는 등 성경신학의 기초를 튼튼히 했다. 특별히 고려신학교는 한국 개혁주의 신학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소개하는 등 많은 문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sup>118</sup>

118. 많은 문서 활동 가운데 골든 클락의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G. I. 윌리엄슨의 『소요리문답 강해』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등은 고려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조직신학과 관련해서 보면, 고려신학교의 신학 발전의 핵심에는 이근삼이 있다. 이근삼은 미국의 카버넌트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및 화란의 자유대학에서 공부함으로써 박윤선처럼 미국과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에 정통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Th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into Nationalism"(1966)은 고려신학교의 신학적 전통을 체계적으로 밝혀 놓은 아주 값진 작품이다. 그의 주요한 역서로는 헨리 R 반틸의 「칼빈주의 문화관」(1972)이 있는데, 이 역서를 통하여 어거스틴,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스칼더로 이어지는 칼빈주의적 기독교 문화관을 한국 장로교회에 소개했다.

이근삼의 주요한 저서로는 「칼빈 · 칼빈주의」(1972)와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1985)가 있는데, 전자는 칼빈의 인격과 역사적 중요성 뿐 아니라 칼빈의 생애와 기독교강요도 간략하게 소개해 놓았으며, 칼빈주의의 정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5대 교리, 종교관, 인간관, 학문론, 생활관, 사회관, 국가관, 문화관 등을 정확하게 요약해 놓았다. 그리고 후자는 개혁주의 신학의 특색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학, 성경의 신학, 거룩한 공교회의 신학, 예정교리의 신학,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별 신학 등을 열거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권위, 의의와 가치, 성경관,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 그리고 교회의 본질 등을 다루어 놓았다.

이렇듯, 이근삼은 칼빈과 칼빈주의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깊이있게 다룸으로써 한국 장로교회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노선을 따라 더욱 부흥할 수 있게 기여하였다.

## 2. 총회신학교 (총신대학교)

박형룡과 박윤선 및 명신홍의 신학적 맥을 이어 받아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총신의 2세대 신학자들로는 구약의 김희보, 최의원, 신약의 신성중, 최낙재, 조직신학의 이상근, 박아론, 차영배, 역사신학의 김의환, 홍치모, 그리고 실천신학의 김득룡과 정성구, 기독교 철학의 손봉호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구약의 김의원, 김정우, 신약의 권성수, 정훈택,

이한수, 조직신학의 서철원, 김길성, 최홍석, 역사신학의 박전택, 박희석, 심창섭, 실천신학의 정일웅 등이 신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신학교는 「신학지남」을 통해서 활발하게 많은 논문을 연구 발표함으로써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 소개된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서 몇 분만을 편의상 살펴보면, 「구약신학 논고」와 「소선지서 주석」등을 쓴 김희보의 경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 연구, 아굽의 성화의 과정에 나타난 악한 소행과 회개와 신앙에 대한 해박한 연구,<sup>119</sup> 인간에 대한 구약적 연구,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언약적 사랑 연구, 구약에 하나님의 칭호 연구, 성소와 성물과 제사에 나타난 인간의 구속과 예배 연구, 여호수아의 기독교론과 도피성에 보는 기독교론, 시편의 신관, 인죄관, 내세관과 천사관, 이사야서에 나타난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여호와와의 중, 그리고 요엘서의 의의 교사에 대한 연구 등은 참으로 탁월한 논문들로서, 칼빈주의의 구약신학 체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아홉 권의 전집으로 출간된 그의 소선지서 전권 주석<sup>120</sup>은 총신대학 출판부가 간행한 최고의 전집으로서 주석의 백미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마디 한 마디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전체의 흐름을 살려 성령의 감동 아래서 상세하게 주해하였다.

신약 신학의 경우 신성중은 그의 「신약신학」에서 게할더스 보스와 리텔보스, 조지 래드, F. F. 브루스와 같은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입장을 선호하고,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논함에 있어서 영감과 권위 그리고 무오성이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sup>121</sup>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신약의 성령론, 신약의 성윤리, 기독교인의 사회참여 등 목회와 관련하여 실제적이고도 주요한 주제들을 잘 다루어 놓았다.

119. 김희보는 창세기 32:25의 아굽의 씨름을 호세아 12:23에 비추어 그의 가장 간교하고 악한 소행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약신학 논고』 p. 32)

120. 『학개 말라기 주해』(1982), 『호세아 주해』(1983), 『요엘 주해』(1984), 『아모스 주해』(1984), 『스가랴 주해』(상)(1985) (하)(1986), 『미가 주해』(1987), 『하박국 스바나 주해』(1987), 『요나 나훔 오바다 주해』(1988).

121. 신성중, 『신약신학』(기독교 문서관교회, 1981), p. 58

조직신학의 경우, 바아론은 반틸의 전제주의적 칼빈주의 방법론을 따라 변증학과 힘증학을 체계화시켰고<sup>122</sup> 창조, 섭리, 이적에 대한 신앙, 부활 신앙 등을 사도신경대로 증거하였다. 그리고 현대 신학과 관련해서는 발트, 브룬너, 볼트만, 폴 틸리히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비롯하여 판넨버그와 몰트만, 세속화신학 등을 비판하는 한편 반틸의 전제주의 철학을 비기독교 철학과 대비시켰다.

조직신학의 차영배는 「바빙크의 신학의 방법과 원리(신학서론)」(1983)에서 박형룡의 계시의존사색 대신에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한 계시의존 신앙을 강조했다.<sup>123</sup> 그의 「삼위일체론(신론)」(1982)에서는 삼위일체론을 신학 전반의 초석이 되는 신학의 '본질적 원리(principium essendi)로 보았다.<sup>124</sup>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기 전에 삼위일체 자체를 먼저 다루었으며,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삼위일체론을 소개함으로써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정립하여 제시했다.<sup>125</sup> 특별히, 조직신학 분야에서 차영배가 기여한 주제는 성령론이다. 그는 1977년부터 A. 카이퍼의 성령론을 비판하기 시작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R. B. 게핀(Gaffin)과의 팽팽한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순절 성령세례의 계속적 반복성을 주장했다.<sup>126</sup>

교회사의 김의환은 자기의 글들을 다섯 권의 전집으로 묶어 놓았는데, 기독교 역사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적 분석과 해석을 시도한 「기독교회사」(제1권), 각종의 현대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비판하여 바른 신학의 원리를 제시한 「현대신학과 개혁주의 신앙」(제2권), 한국 교회의 전통적 신앙과 신학의 특성을 소개하고 복음주의 신학을 밝혀 놓은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 교회의 신앙」

122. 바아론,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가?(기독교 변증학)』(세종문화사, 1977); 『왜 기독교는 진리인가?(기독교 힘증학)』(예수교 문서선교회, 1978).

123. 차영배 편저, 『H 바빙크의 신학의 방법과 원리(신학서론)』(충신대학 출판부, 1983), pp. 469, 470; “성령의 내적 증거는 신앙의 주관적 근거이고, 성경은 신앙의 객관적 근거이다.” “신학의 외적 원리가 특별계시인 성경이라면, 그 내적 원리는 성령의 증거 혹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124. 차영배, 『개혁신학의학: 삼위일체론(신론)』(충신대학 출판부, 1982), “서언”

125. 상계서, pp. 247-248.

126. 차영배, 『성령론』(경향문화사, 1987), pp. 18-19, 33-46, 52-28.

(제3권), 성경적 목회신학의 모델을 제시하고 복음 선교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 「목회신학과 선교전략」(제4권), 그리고 복음주의자의 성령충만한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강해설교와 신앙 수상」(제5권) 등은 역사신학, 현대신학, 목회신학, 선교신학 그리고 설교학에 이르기까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명쾌하게 잘 밝혀 놓았다.

끝으로, 총회신학교의 자랑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를 즐기치게 연구하여 발표한 「신학지남」이다. 이 신학지남의 역사적 의의는 신학지남의 역사 자체나 마찬가지로 박형룡이 밝힌 대로, 한국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정통신학 곧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의 발전 과정을 표시하고 신학의 방향을 지도하는 일이다.<sup>127</sup> 이 신학지남의 역사를 1954년 2월에 복간된 이후로만 살펴보면 복간호(114호)에 “칼빈주의의 근본정신”이 특별히 게재되고, 통권 122호(1962년)에는 칼빈특집이 실려 있고, 간하배의 “한국 장로교 신학에 관한 연구”가 134호(1966년)부터 다섯 차례로 나뉘어 소개된 바 있으며, 138호(1967년)에는 1967년 신앙고백을 비판하는 특집이 실려 있다. 그리고, 142호(1968년)부터 148호(1970년)까지는 발트, 볼트만, 판넬버그, 몰트만, 사신신학, 상황윤리 등을 비판하는 글들이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151호(1970년)와 152호에는 개혁주의 성경관을 다루었고, 161호와 162호에는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현실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그런가 하면, 174호에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과 계보를 다룸으로써 우리의 신학적 색깔을 확실하게 밝혔다.

### 3. 개혁신학연구원

1979년 합동측으로부터 분열하면서 설립된 개혁신학연구원은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를 보수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1980년대에 개혁신학연구원은 구약에 이진태, 신약에 정원태, 조직신학에 서철원

127. 박형룡, “신학지남의 한국신학사적 의의”, 『신학지남』 제42권 4집(1975년 겨울), p. 12.

128이 중심이 되었으나 90년대에는 구약에 손석태, 신약에 홍인규,<sup>129</sup> 조직신학에 나용화, 역사신학에 김광채, 실천신학에 채규현 등이 여러 차례에 걸친 교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학 연구와 저술에 힘썼다.

신약의 정원태는 D. M. 로이드존스의 「성령세례」(1986년)를 번역하고 도날드 거쓰리(Donald Guthrie)의 「신약신학」(1988년)을 번역하였다. 그리고 「열정 칼빈주의」(1984년)를 저술했다. 정원태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신학과 신앙의 사상 체계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임을 확신하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는 웅대무비한 신학과 신앙의 체계”로 정의했다.<sup>130</sup> 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만을 알뿐이었다.<sup>131</sup> 그리고 기도와 성령충만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sup>132</sup>

조직신학의 서철원은 「신앙과 학문」(1988년)에서, 창조와 구속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이 모든 인류의 목표라고 규정하고,<sup>133</sup>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 구속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립하는데 헌신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sup>134</sup>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시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 이 지구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고 말하였다.<sup>135</sup> 또한 서철원은 성령강림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연적 귀결로 보고, 성령이 인류 가운데 내주 하려 강림하신 까닭에 오순절 성령강림은 단회적일 수밖에

128. 서철원은 1991년에 자리를 총신대학교로 옮겼다.

129. 홍인규는 1999년에 천안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130. 정원태, 『열정칼빈주의』(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서언”.

131. 상계서, pp. 23-25.

132. 상계서, pp. 57-58.

133. 서철원, 『신앙과 학문』(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p. 17.

134. 상계서, p. 24.

135. 상계서, p. 41.

없다고 주장했다.<sup>136</sup> 또한 서철원은 그의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언약과 관련하여 첫 언약인 행위 언약과 아담의 타락 이후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은혜 언약을 첫 언약의 회복과 성취로 보았다.<sup>137</sup> 이렇듯 서철원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인 개혁신학을 발전시켰다.

1990년대에 개혁신학 연구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수들의 경우, 구약신학의 손석태는 「이스라엘의 선민사상」(1991년)<sup>138</sup>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사상을 깊이 있게 다루었는가 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1997년)에서는 언약 사상을 더 심도있게 다루었다. 또한 「창세기 강의」(1993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속사적으로 소개하였다.

신약신학의 홍인규는 「바울의 율법과 복음」(1996년)<sup>139</sup>에서 갈라디아서를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율법과 복음이 상충되지 아니함을 밝혔으며, 역사신학의 김광채는 「근세 현대 교회사」(1990)에서 화란의 칼빈주의와 영국의 청교도의 기원, 웨스트민스터 회의,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즈 등을 다루었다. 조직신학의 나용화는 「현대신학평가」(1991년)에서 남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을 비판했고, 「칼빈의 기독교강요 개설」(1992년)에서 기독교강요를 요점적으로 소개했으며, 「칼빈과 개혁신학」(1992년)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사상을 진술하였고, 「영성과 경건」(2000년)에서는 칼빈의 영성을 비롯하여 개혁주의 영성을 개진하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2000년)에서는 신앙고백서를 심도있게 해설하였고, 「핵심조직신학개론」(2002년)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명쾌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나용화는 존 머레이의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1976년), 골든

136. 상계서, p. 161; 참고, 서철원, 『성령신학』(총신대학 출판부, 1995), pp. 63-84.

137. 서철원, 『하나님의 구속 경륜』(성문당, 1989), p. 16.

138.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은 Eerdmans에서 *The Divine Election of Israel* (1991)로 출판된 바 있다.

139. 『바울의 율법과 복음』은 *The Law in Galatians* (Sheffield:JOST, 1993)에서 출판된 바 있다.

클락의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1980년), G. I. 윌리엄슨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1980년), 로날드 윌레스의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1988년), M. 에릭슨의 「기독교 신학(인죄론)」(1993년), 「새성경사전」(1996년), F. F. 브루스의 「신약사」(1981년), 헨드릭슨의 「목회서신」(1981년) 등 많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저작물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 4. 합동신학교 (합동신학대학원)

박윤선이 초대 교장으로 1981년에 설립된 합동신학교는 구약의 율영탁, 신약의 박형용, 조직신학의 신복윤, 역사신학의 김명혁이 주축을 이루어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을 발전시켰으며, 특별히 「신학정론」을 통해서 무게있는 논문들을 내놓았다.

조직신학의 신복윤은 루이스 벨코프와 박형용의 조직신학을 그대로 가르쳤고,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기독교강요를 번역했고, 칼빈에 관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sup>140</sup> 구약의 율영탁은 소리나지 않게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신학적 색깔만큼은 아주 분명히했다.<sup>141</sup> 신약의 박형용은 바울의 구속사관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R. B. 게핀의 가르침을 따라 소개하되, 헨드릭슨, 리텔보스, G. 보스, 존 머레이 등의 바울신학을 크게 의존했다. 박형용은 그의 「신학개관」(1987)에서 구약의 영감, 신적 권위, 역사성, 메시아 예언 등과, 은혜의 시대인 신약이 계시, 예언, 제사 및 구원의 완성이자 시간, 성령, 죄악의 충만임을 소개했고, 또한 신약의 성령론을 성경계시,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 죄 아래 있는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재림, 육체의 부활과 관련지어 체계적으로 요점적으로 다루었다.<sup>142</sup> 역사신학의 김명혁의 경우

140. 『신학정론』에 실린 칼빈에 관한 신복윤의 글로는 “칼빈의 성령론”(제2집), “칼빈의 윤리사상”(3집), “칼빈사상에 있어서 자연신학”(6집), “칼빈의 교회론”(11집) 등이 있고, 『신학지남』에는 “칼빈의 국가관(1973), “칼빈의 칭의관”(1974), “칼빈의 영혼관”(1975) 등이 있다.

141. 율영탁은 저명한 복음주의 구약신학자들의 논문들을 번역하여 여러권의 『구약신학 논문집』(성광문화사)으로 출간했다.

142. 박형용, 『신학개관』(아가페 출판사, 1987), pp. 67-77.

그가 1993년 11월 정암신학강좌에서 발표한 “한국교회와 성령론”에 의하면, 길선주, 김익두, 주기철을 비롯하여 박형룡, 박윤선, 박형용, 유영기, 차영배, 이종성, 안영복 등의 성령론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박형룡과 박형용의 성령론 대신에 박윤선과 차영배의 성령론을 취하여 “한번 오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오시고 더 충만히 오신 것처럼, 한 번 오신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오시고 더 충만히 오신다”고 결론 맺음으로 자신의 성령론을 피력하였다.<sup>143</sup>

합동신학교의 자랑인 「신학정론」은 창간호(1983)에서 “하나님 나라”, 제2집(1983)에서 “칼빈연구”, 제3집(1984)에서 “개혁주의 계시론”, 제5집(1985)에서 “칼 바르트의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제10집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의 A. 터크니의 역할과 대소요리 문답 작성에 미친 그의 영향” 등 주요한 글들을 발표함으로써 복음주의 신학 발전에 기여했다.

## 5. 복음주의 신학회

1973년 방콕 WCC 선교대회의 신학적 입장을 반대하여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성경의 절대 권위와 복음전파를 중요시하는 신학이 복음주의 신학이다. 이 신학이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1974년 로잔 세계 복음화 위원회가 조직되고 로잔 언약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는 1971년에 김의환, 한철하, 오병세, 조종남 등이 시작하였으나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가, 1981년 11월 14일에 한철하, 오병세, 김명혁, 이종윤, 손봉호, 이형기 등 15명이 새롭게 조직을 갖추고서 1982년 4월에 제1회 신학 공동발표회를 가졌으며 1983년 5월에 「성경과 신학」제1집 창간호를 발간함으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복음주의 신학회는 처음부터 성경의 신앙에 굳건히 서서 모든 자유주의 신학과 싸우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성령의 힘과 인도하심을 따라 연구하고 전

143. 김명혁, “한국교회와 성령론”, 『신학정론』 12권 1호, p. 233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진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sup>144</sup> 그래서, 창간호에는 성경관에 대한 글들과 민중신학을 비판하는 글들이 실렸었다.

이 신학회는 성령론(1985년), 기독교의 구원관(1986년), 성경해석학(1987년), 복음주의 교회론(1988년), 복음주의와 사회윤리(1989년), 성경관 재조명(1990년), 시한부 종말론(1992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1993년), 복음주의란 무엇인가(199년), 그리고 현대 종말론(2000년) 등 주요한 주제들을 다루어 연구 발표했다. 이로써 복음주의 신학이 더욱 왕성하게 발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6. 복음주의 학생선교단체

한국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가 흥왕할 수 있게 된 배후에는 이 신학을 떠받쳐 주는 튼튼한 하부 구조로 복음주의적인 학생선교단체들이 있다.<sup>145</sup> 1960년대부터 대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쳐 온 학생 단체로는 김준곤이 지도하고 있고 홍정길, 옥한흠 등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한 CCC, 이창우가 광주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고 구약신학의 손석태, 신약신학의 김세윤, 조직신학의 황승룡, 나용화, 고광필, 실천신학의 안병호 등 실력있는 신학자들을 배출한 UBF와 ESF,<sup>146</sup> 합동신학대학원의 송인규를 배출해 낸 IVF 등이 있다. 그리고 성경묵상운동을 교회와 평신도들 사이에서 일으킨 성서유니온이 있다.

## VI. 전망과 과제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충성하는 신학자들을 많이 세우셔서 그 신학사상이 발

144. 『성경과 신학』1집(19835): p. 4.

145. 김의환,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p. 292.

146. UBF의 내부개혁을 위해 저항하다가 생겨난 것이 ESF이다.

전되게 하셨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하지, 워필드, 보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메이첸, 반틸, 존 머레이, E. J. 영, 칼빈 신학교의 벌코프, 그리고 한국장로교회의 마포삼열, 객안련, 이눌서, 또한 박형룡, 박윤선, 명신흥 등 충성스런 종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들의 헌신과 충성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을 선호하는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적어도 일반 교회를 웃돌고 있다. 신학교들도 개혁신학연구원, 고신대학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과 천안대학교 등 다수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실력 있는 젊은 신학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복음주의 신학회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 학생선교단체들도 여전히 신앙과 신학적으로 흔들림없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번역서와 저서들이 계속 출간되고 있다. 이로 보건대 칼빈주의적 복음주의의 앞날은 이같이 튼튼한 구조와 왕성한 활동이 지속되는 한 아주 밝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성경과 관련하여; 우선 남미의 해방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의 사회학적 성경해석학의 잘못을 단호하게 거부하고<sup>147</sup> 성경 해석의 열쇠는 성경 자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심을 주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신적권위, 영감성과 최종성 및 성령의 내적 증거 등을 기초로 하여 성경을 해석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적 상황 가운데서 살아 역사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sup>148</sup>

특별히,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성경을 기독교인의 삶의 원천으로 삼는데 크게 실패하고 있는 점이다. 성경의 무오성과 유기적 축자영감 교리는 강조하면서도 성경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sup>149</sup> 그러므로 우리

147. 나용화, 『현대신학평가』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pp. 359-366; 『성경과 신학』제1권 (1983년): p. 289.

148. 『성경과 신학』제1권, p. 290.

149. 박용규, 『한국장로교 사상사』, pp. 354-355.

의 당면한 과제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sup>150</sup>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 체험을 갖게 해야 한다.<sup>151</sup>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격 간에 사랑의 상호 교제가 있는<sup>152</sup> 위격 공동체 또는 존재 공동체임을 강조함으로써, 무너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령의 은사 중에 소홀하게 다루기 쉬운 섬김의 은사를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섬기며 복종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인간과 관련하여; 기존의 삼분설이나 이분설에 따르면 인간의 구성 요소를 등급화하여 영혼을 육체보다 더 고상하게 보거나 육체와 분리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존 머레이, A. 후크마, M. 에릭슨 등이 성경적으로 제시한 대로 인간을 영육통일체로 이해하여 전인적 인간상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 또한, 죄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형벌적, 도덕적 요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시켜 죄문제를 보아야 한다.<sup>153</sup>

넷째,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강조하되, 소극적인 기복신앙을 극복하게 해야 한다.<sup>154</sup> 이를 위해서 은혜의 외적 방편인 말씀 묵상과 기도생활을 힘쓰도록 강조해야 한다.<sup>155</sup> 즉,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알고 순종케 하며, 기도를 믿음의 주요한 연습으로 알고 규칙적으로 힘써 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한편, 죄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150. 김의환,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p. 334; 참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제157, 160문답.

151. 김명혁,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복음주의 신학의 당면과제", 『목회와 신학』(1992년 8월): p. 115.

152. 박형룡, 『교의신학』II(신론), p. 197.

153. 밀라드 J. 에릭슨, 『인죄론』 나용화, 박성민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 319.

154. 김의환, 상게서, p. 335.

155. 참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제153문답.

관련하여 구원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sup>156</sup>

다섯째, 교회와 관련하여;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회의 취약점은 문화 변혁적 행동성의 빈곤이다.<sup>157</sup> 문화적 폐쇄주의와 사회적 도피주의의 경향이 있다.<sup>158</sup> 그런가하면, 교회가 물량주의 현상에 빠져 수적 성장만을 강조하고 이로써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다.<sup>159</sup> 그런 까닭에,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사회적 참여와 문화 변혁에 교회로 하여금 힘쓰게 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사회봉사를 통한 참여를 동일하게 강조하는 균형 잡힌 복음주의 신학을 정립해야 한다.<sup>160</sup>

여섯째, 종말과 관련하여;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회의 종말론은 세대주의 색채가 강하다.<sup>161</sup> 이로써 탈세상적 도피주의의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이중적 종말론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종말과 죄 용서를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 종말과 마지막 심판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미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선교와 관련하여; 오늘의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는 세계 선교의 전략을 수립하여 오늘의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sup>162</sup> 오늘의 세계 상황은 종교 혼합주의, 뉴에

156. 존 스타트,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pp. 17-20.

157. 박아론, “해방 30년의 한국보수주의 신학”, 『신학지남』 제42권 4집 (1975 겨울): p. 45.

158. 김의환, 상계서, p. 69; 박용규, 『죽산 박형룡박사의 생애와 사상』, p. 491.

159. 김의환, 상계서, pp. 296, 302.

160. 김명혁, 상계서, p. 113.

161. 참고, 김의환, 『현대신학개설』, p. 200;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p. 149; 박용규, 『한국장로교 사상사』, pp. 68-69, 355-356; 『죽산 박형룡박사의 생애와 사상』, pp. 393, 442, 448, 476. 박용규, 서철원 그리고 신복윤은 공통적으로 한국교회의 초대 선교사들과 박형룡의 종말론을 세대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62. 김의환,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신앙』, p. 71.

이지 운동, 토착종교의 재흥, 정치 경제적 부정부패, 빈부 격차의 심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공동체 몰락과 인간성 상실의 위기, 그리고 이슬람교의 재흥 등 반기독교적 추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욱 충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최종성, 인간의 죄성과 죄의 결과, 회개와 참된 신앙의 필요, 그리고 예수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 등 기독교의 복음을 더욱 성실하게 제시해야 한다.<sup>163</sup>

이같은 주요한 과제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경 중심으로 성실하게 풀어나가는 것은 이제 21세기를 맞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런 교회를 위하여 앞서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의 뼈대를 세우고 발전시켜 온 선배들의 뒤를 이어 우리도 전심전력해야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

---

163. 참조, 『성경과 신학』 제1권, pp. 291-292.